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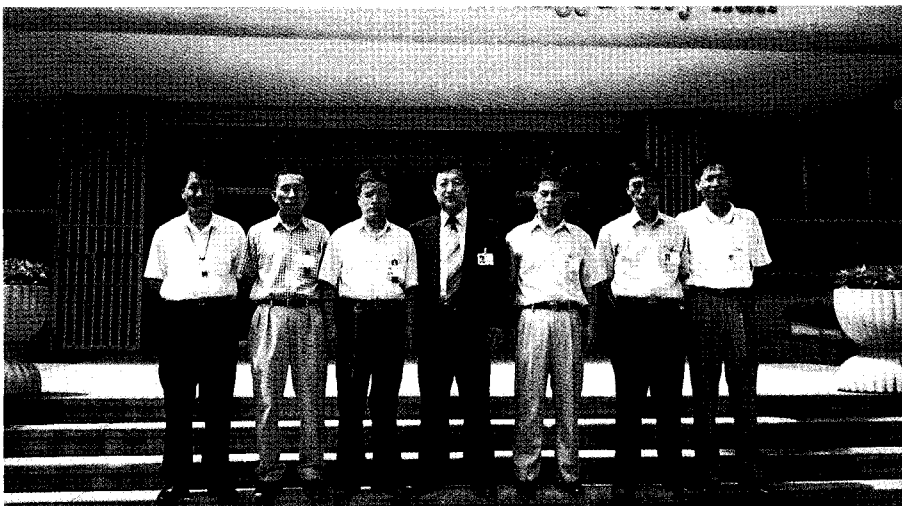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 구승호 주사 국내 최초 지자체 산하단체 ESCO사업 일괄추진

취재 ■양선영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ESCO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에서도 그 에너지절약효과를 감안해 공공부문의 ESCO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법령만 제정한다고 해서 실제 그러한 일이 쉽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그 목적과 합치되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법이 그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에 근무하는 에너지전문가 구승호 주사. 그는 사과의 전환을 통하여 공공부문 ESCO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모범 공무원이다.



“98년도에 처음 ESCO제도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시산하 전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 단체에서 단위기관별로 ESCO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무료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절약 의식이 희박하고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ESCO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ESCO사업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초로 ESCO사업 단체별 계약을 추진하여 화제가 되었다. 광주광역시 산하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추진대상으로 묶어 ESCO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

시산하 모든 단체를 일괄적으로 묶어 ESCO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 공무원들이 시정사 입구에서 잠깐 포즈를 취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구주사)

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투자기관 등 10개권역 147개 기관의 조명설비, 동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을 구조적·체계적 절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ESCO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 중인데 내년 6월까지의 147개 기관중 55개 기관이 1단계 완료되며, 2, 3단계도 1단계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시 3개권역의 조명분야에만 소요되는 투자비는 약58억 원이며, 연간 165만kWh의 전기를 절약하여 매년 약2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구승호 주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모든 문제점 뒤에는 항상 해결책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위기관별로 ESCO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단위기관수대로 절차를 밟아야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ESCO들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단 10개의 계약으로 해결했다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 주시는 공무원 생활만 14년째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저절로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ESCO 전도사가 되었다.

그를 통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기업가는 “광주시 ESCO사업은 공무원이 확실한 국가관에 입각한 업무 추진으로 이른 행정의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들이 일의 추진, 열성, 아이디어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공무원사회에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확립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ESCO사업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 “행정의 혁명”

이와 같이 구 주사의 국가 에너지관은 확고하다. 그는 에너지를 “단순히 자동차를 굴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력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연과 환경처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면 그만이라고 에너지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도.

ESCO사업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이지만 정작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SCO의 방향은 절약기술의 개발이나 시스템의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지원제도 확충 및 에너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계몽하는 일이겠지요. 예를 들어 아직도 비효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고효율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재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절약문제는 인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단순한 규제적 절약을 구조적 절약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완성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별 단위, 계층화된 단위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적인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통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승호 주시는 “아무튼 광주광역시 사례가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의 ESCO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일을 실행하면서 ‘법과 지침’ 사이의 괴리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분명히 법이 우선이고 상위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에는 법의 목적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대로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 ESCO사업은 지난 6월4일 1단계 사업에 대한 ESCO들의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신규 ESCO업체를 제외한 22개 ESCO들이 신청서를 접수시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ESCO사업에 앞장서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게 됨으로써 ESCO사업의 타당성을 밝히게 될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앞으로 다른 광역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ESCO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료의식을 느낀다고 말하는 구승호 주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 만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구 주사를 보며 ‘참된 공무원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